▌이베로아메리카 제11권 1호[2009. 6] : 39~70

연금술의 관점에서 본『연금술사』

박 원 복*
(Park, Won-Bock)

<Abstract>

Alchemy and *The Alchemist*

Este estudo tem por objetivo analisar, do ponto de vista da alquimia, *O Alquimia*, considerado uma das obras mais representativas do escritor brasileiro Paulo Coelho. Para tanto, começamos a observar as características da alquimia à qual o próprio autor disse que dedicava 11 anos para estudá-la por volta da década de 1970 quando o mundo estava sofrendo grandes mudanças sociais. Desta observação, entendemos que, sendo uma projeção do 'inconsciente' conforme diz C. G. Jung, a essência da alquimia consiste resumidamente nos seguintes conceitos: união de elementos opostos, transformação e salvação.

A partir daí, tentamos estudar como esses coneitos estão diluídos na estrutura de *O Alquimia* e como a experiência do Paulo Coelho com a alquimia interioriza-se no mundo literário dele. E entendemos que os conceitos simbólicos da alquimia e as mensagens que a experiência do escritor com a alquimia configura em suas obras literárias compartilham a quase mesma dimensão semântica. Percebemos também que em alguns aspectos as idéias do escritor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E-mail: brazil21@hanmail.net

consolidadas em torno da sua pesquisa da alquimia vão às vezes além dos conceitos genéricos da alquimia, atingindo assim uma dimensão bastante peculiar e fundamental para compreender melhor o seu universo literário: para ele que se declara católico, Deus não é católico nem islâmico, nem budista, nem hinduista. Por exemplo, ele diz que Deus é um só e é que o Seu nome varia dependendo da religião, porque cada religião precisa escolher um nome para chamá-lo.

[Key Words: *O Alquimista*/ Alquimia/ Paulo Coelho/ União de Opostos/ Salvação]
[주제어: 『연금술사』/ 연금술/ 파울루 코엘류/ 대극의 합일/ 구원]

Ⅰ. 들어가는 말

파울루 코엘류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O Alquimista*(『연금술사』)[1]는 제목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작품이 연금술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코엘류는 자신을 일약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발돋움케 한 이 소설의 서문(Prefácio)에서 1970년대 초에 자신이 11년간 연금술에 몰두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불로장생의 영약이 자

1) 본 글에서는 한글로 번역된 『연금술사』(문학동네)가 아니라 포르투갈어 원본을 참고할 것이므로 원제목 *O Alquimista*를 사용하기로 한다. 아울러 본문에 소개되는 작가의 모든 작품도 포르투갈어 원본을 기준한 것으로써 본문에 인용되는 부분은 연구자의 번역이며 표시된 쪽수도 원본에 준한 것이다. 나아가 파울루 코엘류의 이름 표기도 한국에서 소개된 파울로 코엘료가 아닌, 개정표기법에 의거하여 파울루 코엘류로 표기한다. 그리고 Deus의 경우, 코엘류의 종교관을 고려, 절대자로 번역하기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2장의 '모든 것은 하나'편을 참조할 것.

신을 더 유혹하였는바, 이유는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자신을 절망케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2] 물론 서문이 픽션, 즉 소설의 일부일 수 있지만 작품 전체를 놓고 볼 때, 서문과 본문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픽션으로서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추후에 보겠지만 그의 연금술 지식과 거기서 얻은 나름대로의 교훈이 그의 전(全) 작품에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연금술 연구경험은 그의 말대로 70년대 대(大)변혁기를 거치면서 어떤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거쳤던 자기 삶의 일부분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무렵 코엘류는 록음악과 히피, 대안사회 그리고 군정치하에서의 고문 등을 경험하는 등 혹독한 시련기를 지나고 있었다.[3]

이처럼 작가가 적지 않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은 것인 만큼 연금술에서 엿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금 제작과정과, 그 과정에서 얻었으리라 추측되는 삶의 여러 교훈들이 *O Alquimista* 곳곳에 깔려있다. 금 제작과정의 예를 들자면 작품 후반부에 산티아고와 연금술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향하던 중 3명의 낯선 전사가 두 사람을 멈추게 하고 몸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연금술사의 소지품에서 액체가 가득한 작은 크리스털 플라스크와 노랗게 된 달걀모양의 유리구슬이 발견된 점이 그러하다. 여기서

---

2) 코엘류는 서문에서 "난 내 삶의 11년간 연금술을 연구했습니다. (...) 고백하건데 불로장생의 영역이 나를 더 유혹하였습니다: 절대자의 현존을 이해하고 느끼기 전에 언젠가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이 나를 절망케 했습니다." 원문보기: Durante onze anos de minha vida estudei Alquimia. (...) Confesso que o Elixir da Longa Vida me seduzia mais: antes de entender e sentir a presença de Deus, a idéia de que tudo ia acabar um dia era desesperadora. (...) (*O Alquimista*, 5-6).

3) 코엘류는 청소년시절, 부모의 몰이해에 의해 3차례 정신병원에의 입원한 것, 군정시대에 브라질 최대 록음악 가수였던 하울 세이샤스(Raul Seixas)와 대안사회를 꿈꾸었던 것, 히피, 마약, 종교적 신비주의 등 많은 시련을 거쳐 왔었다(박원복 2008, 33-69) 참조.

말하는 노란 유리구슬은 일반 광물을 금으로 변환시키는 촉매제인 '현자의 돌'을 의미한다. 또한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사는 수도원에 들어간 다음 연금술사가 부엌에서 불과 납 그리고 '현자의 돌'로 보이는 노란색 유리모양의 달걀을 이용하여 원반형의 금을 만드는 것 등은 일반적으로 연금술에서 흔히 알려진 금 제작과정이기도 하다. 나아가 연금술과 관련된 그림 형태의 15여개 문서들이 소설 곳곳에 삽입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그의 연금술 연구경험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금술을 통해 작가는, *O Alquimista*의 서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진리는, 복잡하기 그지없는 연금술의 상징언어와는 달리, 단순하다는 교훈 외에도 '모든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과 자아의 신화(Lenda Pessoal), 변환의 의미 그리고 구원으로서의 사랑 등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지식과 교훈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인격형성뿐만 아니라 대표작으로 꼽히는 *O Alquimista*를 포함하여 여러 작품에 짙게 깔려 있다. 그런 만큼 연금술의 관점에서 그의 대표작을 분석해보는 것은 그의 작품 세계 전반을 이해하는데 결코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글의 초점도 여기에 맞추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작가의 경험이 문학이라는 허구(fiction)의 텍스트로 옮겨지고 그 구조 속에 용해될 때 100%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그가 연금술을 통해 얻은 교훈적 메시지란, 어디까지나 작가의 정신과 텍스트화라는 필터를 통하여 걸러질 뿐만 아니라 그 텍스트에 스며있는 메시지는 연금술만이 아닌 다양한 삶의 경험과 지식들이 다층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연금술에만 의존하여 형성된 것이 아님을 상기해두고자 한다.

Ⅱ. 연금술의 기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연금술은 언제 시작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인간의 무의식과 더불어 나 혹은 이 세계는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종교성 의문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C. G. 융의 말처럼 인간의 무의식이 물질에 투사된, 연금술 전(前) 단계로서의 야금술이 그것이다.[4] 하지만 연금술의 기원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연금술의 조건과 정의를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연금술 대가로 알려진 루케렐리는 연금술의 조건으로써 다음의 네 가지를 꼽고 있다:

> (1) 우주의 운행, 특히 생로병사의 근원에는 지적인 힘 또한 의식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믿음, (2) 인간이라는 존재의 육체적 불멸 가능성에 대한 믿음, (3) 느낄 수 없지만 거역할 수 없는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 (4) 마지막으로 고도로 발달한 야금술의 존재(안드레아 아로마티코 1998, 15).

위에서 열거된 네 가지 조건 가운데 앞의 세 가지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재론적인 물음과 관련이 있다. 생로병사의 근원에 대한 의문 그리고 육체의 불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한계이자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역할 수 없는 우주의 질서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은 육체적으로 한정된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숙명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인 셈이다. 그것이 비관론으로 이어지든 낙관론으로 이어지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로써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

4) 안드레아 아로마티코(1998)와, 미르치아 엘리아데(2003) 그리고 C. G. Jung(2004) 등이 그러하며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 두 가설은 완전히 분리되어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이 연금술의 탄생을 가져왔음을 지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마지막 조건인 연금술 전 단계로서의 야금술은 앞선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인간의 구체적인 반응인 셈이며 이것은 곧, 차후에 다시 보겠지만, 인간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의 운행 질서 속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바로 야금술과 연금술이 탄생했다는 것이다.[5]

이처럼 연금술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문 및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원 또한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집트, 그리스, 아랍,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등 대다수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싹을 피웠던 것으로 보인다(안드레아 아로마티코 1998, 16 참조). 특히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지 않았던 고대 이집트에서는 연금술사들이 '영원한 불의 사제'로 간주되었으며(앞의 책, 16-17 참조) 그들의 작업은 신의 작업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신의 작업이란 시간이라는 개념과 매우 밀접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간의 숙명은 육체적으로 한시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그 시간성을 초월하는 것은 오로지 신의 영역이며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연금술사들이 광물질을 금으로 변환하고자 하는 데는 그와 같은 시간을 초월하려는 의지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연금술사들은 우주만물을 절대자의 창조에 의해 생겨난 창조물이며 그 모든 창조물은 영원성을 지향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나아가 그들은 연금술의 주된 대상인 광물이 자연의 태반인 땅 속에서 수많은 세월을 거쳐 숙성을 하며 궁극적으로는 금을 지향하고 있다고 믿었고 이 작업을 연금술이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미르

5) 물론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연금술이 비단 금을 만드는 작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로장생의 영약을 만드는 일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다루기로 한다.

치아 엘리아데 2003, 55-57 참조). 여기서 모든 광물들이 금을 지향한다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 을 지향한다는 의미와 같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금은 변하지 않는 영원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완전무결한 광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물을 금으로 변환시키는 비밀, 즉 '현자의 돌'을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 역시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연금술이 불로장생의 영약과 관계를 맺게 된 출발점이었다.

> 요가, 특히 탄트라교의 하타 요가와 연금술 사이의 어떤 일치 현상은 정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체와 심리적 정신적 삶에 대해서 조작을 가하는 요가 행자와 물질에 대해서 조작을 가하는 연금술사 사이에는 명백한 유사성이 있다. 그 어느 쪽이나 '불순한 물질'을 '정화'시키고 '완성'시켜, 최종적으로는 '금'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미 본 바와 같이, 금은 불사성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완전한 금속으로서, 그 상징성은 불멸의 자유롭고 순수한 정신의 상징성과 합치된다. 이 정신은 요가 행자가 고행에 의해서 '불순'하고 예속된 심리적 정신적 삶으로부터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연금술사가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고행을 물질에 '투입'하는 요가 행자와 동일한 결과이다(앞의 책, 132~133).[6]

---

6) 엘리아데의 부가설명에 따르면 "현자의 돌에 치료 효과를 부여한 최초의 사람들은 아라비아의 연금술사들이었고, 이 아라비아 연금술의 중개에 의해서 '생명의 영약'이라는 개념이 서양으로 번졌다. 로저 베이컨 Roger Bacon은 『대작업 Opus Majus』에 현자의 돌과 영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가장 비천한 금속에서 불순물과 부패를 제거할 수 있으며, 육체의 불순물을 세척하고 육체의 쇠퇴를 막아서 수세기 동안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에 대해서 적고 있다. (...). 아라비아 저술가들을 거쳐서 서양에 들어간 이 엘릭시르라는 연금술의 개념은 기적의 약초나 불사의 음료에 대한 신화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신화는 아주 원시시대부터 인도 유럽족에게서 발견된 것이므로, 그 태고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서양에서 이 엘릭시르는 그것이 연금술 작업 및 현자의 돌과 동일시되었다는 점 이외에는 새로울 것이 없었다(같은 책, 173~174)."

따라서 연금술사들은 대지 속에서 광물의 자연스러운 숙성 기간을 앞당기는 작업을 통해 '불멸의 순수성'을 획득함으로써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였다. 그와 동시에 절대자에 의해 존재하게 된 모든 창조물들 속에는 우주의 창조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연금술을 통하여 그 비밀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창조의 비밀이란 우주 발생의 근원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비밀은 절대자의 고유한 영역임을 알고 있었기에 절대자의 작업을 보조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이 절대자의 영역을 넘보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7]

그런데 우주 창조의 비밀을 찾으며 시간의 영원성을 획득하고자 했던 연금술사들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무의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정신분석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말한다. 그에 따르면 연금술 작업 자체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 인간이 그것을 초월하고자하는 무의식적 사고를 표출한 것이며 그것이 광물질에 투사된 것이라는 것이다:

> **투사Projection**는 엄격히 말해 결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다. (...)실험자는 화학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어떤 정신적인 체험을 하는데, 그러한 체험들이 그에게는 화학적 과정의 특별한 형태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이 투사이기 때문에 그는 물론 그러한 체험이 질료 그 자체(즉,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질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가 실제로

7) 미르치아 엘리아데에 따르면, "연금술사는 시간을 대신하면서도 시간의 역학을 침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경계했다. 그는 시간적 리듬을 가속화하며 자연보다 빨리 금을 제작하고 싶어하기는 했어도, 훌륭한 '철학자'나 신비가로서 시간을 두려워하였고, 자신이 본질적으로 시간적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낙원의 지복을 열망하고 영원을 꿈꾸며 불사와 생명의 영약을 추구하였다."(같은 책, 188). 연금술사들이 시간의 역학을 침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경계를 했다는 것과 시간을 두려워했다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자연 혹은 절대자의 보조자로 생각하고 그 경계를 지켰음을 알 수 있다.

체험한 것은 그의 무의식이었다(C. G. 융 2004, 37-38).

그런데 무의식이 인간의 고유한 속성 가운데 하나이고 그 무의식의 투사가 연금술이라면 연금술은 인간의 탄생과 더불어 인간에게 내재된 정신적 혹은 심리적인 그 무엇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무의식의 어떤 면이 연금술로 투사되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그 의문은 연금술의 기원에서 보았듯이 한시성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간의 존재 조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보편적 열망일 것이며 그 열망은 자연스럽게 한시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구원과 연결된다. 그런 맥락에서 연금술사들의 금변환 작업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일치된 작업과정과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우주는 근본적으로 하나에서 출발하였다는 원질료(materia prima) 개념과 모든 광물을 금으로 변환하게 해주는 매개체로서의 '현자의 돌'(pedra filosofal) 개념은 시대와 장소를 떠나 일치하고 있다. 어쨌든 연금술사들은 그것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인간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제부터 연금술에서 엿볼 수 있는 여러 중요 개념들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라는 대극(對極)의 합일 개념과 변환 그리고 구원이라는 개념들이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코엘류의 작품세계에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 개념은 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긴밀한 유기적 관계 속에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해두고자 한다.

Ⅲ. 연금술의 의미

1. '모든 것은 하나': 대극(對極)의 합일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융이 말한 무의식의 투사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연금술이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론적 물음에서 출발하였으며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라는 그 존재론적 물음은 궁극적으로 우주의 탄생의 비밀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근본 원소가 물, 불, 흙, 공기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론이 등장하였는바, 이는 4원소들이 배합 비율에 따라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탄생했다는 설이 핵심을 이룬다.(『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 사전』 2002, 14권 170-175와 15권 528 참조). 여기에 플라톤의 이데아(idea)[8]가 합쳐져 5원소론 혹은 공간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힌두교의 5원소론도 등장하였다. 그런데 연금술이 위축되면서 화학이 꽃피울 무렵까지 연금술은 사실상 유럽적 사고에 기초하였으므로 4원소론이 크게 힘을 발휘하였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온 것으로써 건, 냉, 습, 열의 성질이 작용하는 바에 따라 물, 불, 흙, 공기가 탄생한 것이

---

8) 코엘류의 경우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막을 여행하는 도중 연금술사가 산티아고에게 한 말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다: "현자들은 이 자연의 세계가 단지 천국의 이미지요 복사본임을 알았지.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보다 더 완벽한 어떤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기도 해. 절대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인간들이 자신의 영적인 가르침과 지혜의 놀라운 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야." 원문보기: Os sábios entenderam que este mundo natual é apenas uma imagem e uma cópia do Paraíso. A simples existência deste mundo é a garantia de que existe um mundo mais perfeito que ele. Deus o criou para que, através das coisas visíveis, os homens pudessem compreender seus ensinamentos espirituais, e as maravilhas de sua sabedoria(*O Alquimista,* 175).

며 이 원소들의 배합 비율에 따라 우주의 모든 물질이 탄생하였다고 보았다. 이것은 결국 우주의 근본물질은 궁극적으로 하나였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연금술의 기본사상이 되었던 것이다:

> 연금술의 기본 사상은 모든 것이 하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 「서판書板Tabula(=에메랄드 서판–역주)」[9]에 이르기를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에서 나왔으며....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이며 동일한 것에서 유래한다sicut omnes res fuerunt ab uno... sic omnes res natae fuerunt ab hac una re"라고 하였다.– 이 하나가 4원소로 갈라지고(...) 4원소에서 다시 하나로 합해진다는 것이다(C. G. 융 2004, 292).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4원소로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말은 결국 우주의 삼라만상이 같은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서 우주의 삼라만상은 유무형의 모든 것을 의미하므로 이 논리에 의거하여 볼 때 연금술사들에게는 돌이 물이고 물이 불일뿐만 아니라[10], 우리가 흔히 반대 개념으로 생

---

9) *O Alquimista*가 연금술이 의미하는 바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특히 금 제조에 몰두하였던 아랍 연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헤르메스 트리스메지스토스가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이집트 연금술의 대가인 조시모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창조의 비밀서」(*Book of the Secret of Creation*)라는 책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로 증류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한다.

10) C. G. 융은 연금술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원질료를 설명함에 있어서 영국의 연금술사 조지 리플레이(George Riplay)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 내용 속에 연금술의 대극합일의 개념을 엿볼 수 있다: "'원질료'는 물이다; 물은 모든 물체의 물질적 원리이며 또한 메르쿠어(수은)의 원리이다. 그것은 신의 창조 행위를 통해 혼돈에서 생성된 어둠의 구球(...)이다. 혼돈은 돌을 생성시키는 "혼돈의 덩어리"이다(...). 소재素材로서의 물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불을 내포하고 있다. 논문 「황산에 관하여De Sulphure」에 대지의 반대 원소인 '지옥의 불Ignis Gehennalis'이 들어 있다"고 소개한다(C. G. Jung 2004, 135–136).

각하는 낮과 밤, 육체와 영혼, 선과 악 등의 모든 대극들 역시 같은 속성의 것이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라는 말이 된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보면 흙, 물, 불, 공기 등 4가지 원소들뿐만 아니라 낮과 밤, 육체와 영혼, 선과 악 등등 모든 것이 이 우주를 이루는 요소이며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근원을 가진 동일한 요소라는 말이 된다.

> 현자의 돌을 획득하는 것은 신에 대한 완벽한 인식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일이라고 연금술사들은 생각한다. 더욱이 바로 그 점 때문에 현자의 돌은 대립의 일치를 가능케 한다. 바실리우스 발렌티누스에 의하면, "악은 선과 동일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 스타키는 현자의 돌은 "대립의 화합이자, 원수지간에 우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묘사한다. 우리는 여기서, 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며 원시 문화에서 이미 입증된 '대립의 일치'에 대한 매우 오래된 상징을 발견하게 된다. 이 대립의 일치는 근본적 실재뿐만 아니라 전체성과 완전성의 역설적 상태, 따라서 신성성과 신의 역설적 상태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었다.(미르치아 엘리아데 2003, 172-173)

이러한 대극의 합일 사상이 연금술과 신비주의의 접점을 이루게 되며[11] 파울루 코엘류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연금술사』에도 '모든 것은 단지 하나'라는 표현이 다섯 차례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12] 이와 같은 사고는 특히 생물과 무생물들 역시도 궁극적으로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으로 확대됨으로써 11년간 연금술에 몰두하였다는 그의 경험이 *O Alquimista*를 비롯한 그의 작품 전편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11) 신비주의의 속성 가운데 하나도 '모든 것은 하나'라는 사상이다. 박원복 2008, 17-27 및 각주 12), 13), 16)도 참조할 것.

12) 코엘류의 표현을 빌면 "Tudo é uma coisa só."(모든 것은 단지 하나이다)며 이 표현은 원본 p.42, p.50, p.64(두 차례), p.199에서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연금술사』에서 산티아고가 바람과 나눈 대화를 보자. 사막의 사령관이 산티아고에게 바람으로 변할 수 있는 지를 증명해보라고 하자 그는 바람에게 자신을 바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며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 – 넌 바람이 될 수 없어.
> 바람이 말했다.
> – 우리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존재야.
> – 그건 사실이 아니야.
> 산티아고가 말했다.
> – 너랑 같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동안 나는 연금술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 내 속에는 바람과 사막, 대양, 별 그리고 우주에 창조된 모든 것이 들어있어.[13] 우리는 같은 큰 손(알라 – 연구자 주)에 의해 만들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같은 혼을 가지고 있지.[14]

자신을 바람으로 변환시켜달라는 산티아고의 요청에 바람은 자신과

---

13) 이 부분에서는 그의 연금술 경험이 신비주의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자신에게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들어있다는 말은 파울루 코엘류가 선호하는 작가로 지목한 영국의 낭만주의 작가이자 신비주의자로 잘 알려진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유명한 표현을 차용한데서도 나타난다: "그(사막 – 연구자 주)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유용하지. 너는 사막을 이해할 필요조차 없어; 단순한 모래 한 알만 깊이 관찰하는 것으로도 족해. 그 모래알 속에서 창조의 모든 환상적인 것을 보게 될 거야." 원문보기: Ele serve para compreender o mundo tanto como qualquer coisa sobre a face da terra. Você nem precisa entender o deserto; basta contemplar um simples grão de areia, e verá nele todas as maravilhas da Criação (*O Alquimista*, p.176–177).

14) 원본보기: "Você não pode ser o vento – disse o vento. – Somos de naturezas diferentes.
– Não é verdade – disse o rapaz. – Conheci os segredos da Alquimia enquanto vagava o mundo com você. Tenho em mim os ventos, os desertos, os oceanos, as estrelas, e tudo que foi criado no Universo. Fomos feitos pela mesma Mão, e temos a mesmo Alma (*O Alquimista,* 196)."

산티아고가 '다른 속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그 바람과 같이 세상을 두루 떠도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모든 창조물이란 큰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과 '같은 혼'을 가지고 있는, 즉 '동일한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깨달음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연금술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너랑 같이 세상을 떠도는 동안'(enquanto vagava o mundo com você)은 앞뒤 문맥으로 보았을 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자신이 안달루시아 지방을 떠나 지브롤터해협을 건너 아프리카 북부의 이집트로 들어오는 과정이 마치 바람처럼 떠돌았던 여정이라고 말한 것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떠돌았던 여정 속에서 자신이 육체를 가진 존재일 뿐 사실은 바람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두 존재의 차이란 그저 산티아고의 경우, 육체라는 존재형태를 갖추었을 뿐이고 바람은 그 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말이다. 즉 4원소론에서 보았듯이 유무형의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코엘류의 다른 소설인 『브리다』(*Brida*)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법으로의 입문 의식을 치르는 여주인공 브리다가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면서 느끼는 육체와 영혼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그녀는 다시 어느 육체 속에 있었다. 그 육체는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백 만 년 동안 투쟁했던 아름다운 육체였다. 그 육체는 바다에서 살았고 육지로 몸을 끌고 올라와 나무에 올랐으며 네발로 걸었었다. 그리고 이제 자랑스럽게 두 발로 땅을 밟은 것이다. 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투쟁해온 것에 대하여 그 육체는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아름다운 육체도, 추한 육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똑같은 길을 걸어왔으며

> 또 모든 육체는 자신에게 머물렀던 영혼의 가시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다.15)

'육체가 영혼의 가시적인 부분'이라는 논리를 확대한다면 그리고 바람과 인간의 영혼 역시 세상의 혼을 이루는 요소로서 궁극적으로 하나에서 나온 것이라면, 산티아고 역시 바람의 가시적인 존재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렇다면 결국 정처 없이 떠돌았던 자신이 곧 바람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람과 함께(com) 한 여정이었지만 어느 새 바람으로 변해있는 자신의 모습(same)을 발견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그리고 산티아고는 이러한 깨달음이 긴 여정에서 알게 된 연금술의 비밀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결국 연금술의 비밀이란 유·무형의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특히 바람과 산티아고의 대화로 돌아가서 보면, 우주의 모든 창조물들이

---

15) 원문보기: "Estava de novo em um corpo, e era um belo corpo, que lutou por milhões de anos para sobreviver num mundo hostil. Habitou o mar, rastejou para a terra, subiu em árvores, caminhou com os quatro membros, e agora pisava, orgulhosamente, com os dois pés na terra. Aquele corpo merecia respeito por sua luta durante tanto tempo. Não existiam corpos belos ou corpos feios, porque todos tinham feito o mesmo percurso, todos era a parte visível da alma que os habitava (*Brida* 1990, 256-267)." 이 표현에서 가톨릭 신자인 코엘류의 또 다른 이단적인 생각, 즉 영혼의 윤회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코엘류는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영혼이 밖으로 드러난 부분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영혼이 세상의 혼을 이루는 일부이며 그 세상의 혼이 절대자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육체는 궁극적으로 절대자의 현시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안드레아 아로마티코는 연금술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써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아우로보로스라는 뱀의 형상을 통해 물질과 정신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금술 자체의 상징물인 아우로보로스 뱀은 연금술 철학의 핵심 개념을 포옹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물질과 정신은 단일하고 같은 것이며, 그것의 조작을 통해 신비한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이는 결국 육체의 변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각각의 요소가 하나같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안드레아 아로마티코 1998, 31)."

'큰 손'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 '큰 손'은 절대자로서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들의 경우 유·무형을 떠나 아버지의 속성 혹은 현대적인 의미로 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창조물로서의 인간을 포함하여 '바람과 사막, 대양, 별' 등 모든 것이 절대자('큰 손')의 유전자를 공유하며 공통된 속성(예, '혼')을 나눠 갖고 있기에 사람도 바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라는 코엘류의 연금술적 사고는 신비주의적 사고와 결합되어 그의 작품세계 전면에 깔려있다.[16] 예를 들면 그에게 있어서 선과 악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 선과 악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은 단지, 그것들(선과 악 – 연구자 주)이 각 인간의 길을 가로지르는, 시대에 달려있을 뿐이다.[17]

또한 밤과 낮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이다. 밤도 낮의 일부일 뿐이다.

> "밤은 단지 낮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브리다의 부친 – 연구자 주)가 말했었다.
>
> 밤은 단지 낮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그리고 빛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 것처럼 어둠에 의해 자신이 보호받고 있음을 느낄

16) 여기서 신비주의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연금술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그 기원은 인간의 탄생,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종교적 심성의 발현으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것이다. 거의 모든 제도종교, 즉 가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에 한 분파 혹은 한 속성으로 존재하는 신비주의의 특성 역시 '모든 것은 하나'라는 것이다(박원복 2008, 15-27 참조).

17) 원문보기: (...), o Bem e o Mal têm a mesma face; tudo depende apenas da época em que cruzam o caminho de cada ser humano,(*O demônio e a srta. Prym* 2003, 46).

수 있었다.[18]

나아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육체와 영혼 역시 하나라는 개념을 개진하고 있다: "모든 육체는 자신에게 머물렀던 영혼의 가시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었다.[19]

결론적으로 낮과 밤, 육체와 영혼, 선과 악 등, 유무형의 모든 것이 결국 한 몸이라는 연금술의 대극 합일 정신이 코엘류의 세계관과 인생관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세계에 골고루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라는 연금술의 근본 개념은 코엘류에게,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종교, 즉 각 종교의 절대자도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개념을 설파하게 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룬다.

>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종교든 진솔하게 선택된 것이라면 동일한 절대자에게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20]

---

18) 원문보기: "A noite é apenas uma parte do dia", dizia. A noite era apenas uma parte do dia. E assim como se sentia protegida pela luz, podia se sentir protegida pelas trevas.(*Brida* 1990, 31).

19) 이어 코엘류는 인간의 육체는 곧 절대자의 현시라고 말한다. 그가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는 인간이 절대자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가 감싸고 있는 영혼도 세상의 혼(Anima Mundi)의 일부이며 그 세상의 혼은 다시 절대자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의 육체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육체는 가시적인 현상 세계에서의 절대자의 현시(manifestação)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Sou livre. Tenho orgulho do meu corpo, porque ele é a manifestação de Deus no mundo visível(앞의 책, 256).

20) 코엘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처럼 대답하였다. 이 외에 코엘류는 절대자는 하나이며 각 종교는 그 절대자를 호칭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이름을 쓰고 있을 뿐이라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그가 오랫동안 각 종교를 섭렵해온 결과이자 신비주의의 개념이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4년 4월 영국의 Hello!지와의 인터뷰(http://www.santjordi- asociados.com/interviews/intvw_hello.htm)와 2001년

2. 변환의 의미

연금술에서의 변환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물리적인 관점에서, 연금술적 변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뿌리인 원질료(materia prima)와 관계된다. 즉 모든 창조물의 근원이었던 애초의 4원소(물, 불, 흙, 공기)가 사실은 원질료라는 하나의 물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원질료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무엇이며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다.[21] 그와 동시에 "모든 원소들과 피조물의 어머니"(C. G. Jung 2004, 136)인 원질료는 모든 물질의 뿌리임과 동시에 모든 것을 그 뿌리로 돌아가게 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연금술사에게 원질료는 모든 광물을 완전무결한 금으로 변환시켜주는 '현자의 돌'이기도 하고 또는 육체의 병과 불순한 모든 것을 제거해주는 불로장생의 영약이기도 하며[22]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 믿어지는

8월 26일자 영국의 The Independent on Sunday지와의 인터뷰(http://www.santjordi-asociados.com/outros/ interviews.htm#independent) 그리고 코엘류의 홈페이지 내에서 자주하는 질문코너 영문 편(http://www.paulocoelho.com/engl/faq2.shtml)을 참조할 것. 각 사이트는 2009년 4월 29일 참조함. 원문보기: Sou católico. Mas acho que toda e qualquer religião, se sinceramente escolhida, leva ao mesmo Deus. (http://www.paulocoelho. org/port/faq.shtml), 2009년 4월 30일 참조함.

21) 융의 분석에 따르면 "원질료는 편재성偏在性(두루 어디에나 존재하는 – 역주)의 특성을 갖는다: 원질료는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한다; 즉, 투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영국의 연금술사 조지 리플레이 George Riplay 경(1415[?]~1490)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철학자(현자)들은 새들과 물고기들이 우리에게 라피스 Lapis를 가져다 준다고 말한다. 누구나 라피스를 갖고 있다. 라피스는 모든 곳에, 네 안에, 내 안에, 모든 것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한다. 라피스는 하찮은 형상으로 나타난다. 라피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물이 생성된다(C. G. Jung 2004, 136)."

22) *O Alquimista*에서 산티아고는 연금술에서 불을 통한 정제 작용으로 광물이 자신의 모든 속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데 그 자리에 남는 것이 바로 세상의 혼이

물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했다.[23]

그런데 코엘류가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부분은 금 제작과 불로장생영약의 제조였다. 이것들의 제작과정은 차치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서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궁극적으로 같은 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절대자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시간의 영원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으로써, *O Alquimista*에서 언급되고 있는 금의 경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광물이 변환을 거듭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데[24] 그 이유

며 이 세상의 혼은 우주 만물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언어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발견을 연금술에서는 위대한 작업(Grande Obra)이라고 하며 이 위대한 작업은 액체부분과 고체부분으로 이루어진 바 액체부분은 불로장생의 영약(Elixir da Longa Vida)라고 하고 고체부분은 현자의 돌(Pedra Filosofal)이라고 부른다. 즉 불사의 영약과 현자의 돌은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O Alquimista*, 112-113 참조).

23) "16세기의 유명한 연금술사 하인리히 쿤라트Heinrich Khunrath는 현자의 돌을 예수 그리스도, 즉 '대우주의 아들'과 동일시했다. 더욱이 그는 그리스도가 소우주인 인간에게 영적인 충만을 허락했듯이, 현자의 돌을 발견함으로써 대우주의 진정한 본성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미르치아 엘리아데 2003, 180)." 현자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의 문제를 다룰 다음 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24) "지하의 모태 속에 잠긴 모든 광석은 수천 세기를 지난 후에야 비로소 금이 될 것이다. 야금술사가 대지모 속에서 시작된 성장을 촉진시켜 '태아'(=광석)를 금속으로 변형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금술사는 이 가속화를 연장시키고, 모든 '범용한' 금속을 금이라는 '고귀한' 금속으로 최종 변성시킴으로써 가속화의 완성을 꿈꾼다.(...) 따라서 금의 '고귀함'은 '성숙'의 결과이며, 다른 금속들은 '익지 않은' '날 것'이기 때문에 '비천'하다. 그런데 자연의 궁극 목적은 광물계의 완성, 그 최후의 '성숙'에 있다. 금속이 금으로 변하는 '자연적' 변성은 금속 자체의 운명에 새겨져 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연은 완전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미르치아 엘리아데 2003, 55-57)." 여기서 자연이 완전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완전은 곧 절대자를 의미한다. 이것은 불순물이 섞인 광물을 정련하여 개별적인 모든 속성으로부터 벗어날 때, 즉 변환이 최종 단계에 이를 때 단지 절대자의 혼과 직결되는 세상의 혼만 남는다고 한 코엘류의 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이 내용은 카라반을 따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산티아고가 영국인(Inglês)이 가지고 있던 연금술 관련 서적을 읽고 난 뒤 말한 것에서 나온다: "그들(유명한 연금술사들 – 연구자 주)은 만일 어떤 금속이 아주 오랜 세월동안 불에 용해된다면 결국 자신의 모든 개별적인 속성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그 자리에 단지 세상의 혼만이 남을 것이라고 믿었다." 원문보기: (...) acreditavam que

는 금이 더 이상 다른 광물로 진화하지 않는 완전무결한 광물로서 영원의 시간을 향유하는 절대자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를 융이 말한 무의식의 투사와 연관지어볼 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조건인 한시성(限時性)을 초월하여 영원성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근원인 절대자(아버지)에게로 회귀하려는 욕망이 연금술을 통해 투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광물의 변환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비록 생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광물마저 금이 되고자 오랜 세월을 묵묵히 땅 속에서 인내하며 지내는데 코엘류는 이를 광물 각자의 열정 즉 자아의 신화(Lenda Pessoal)[25]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자연의 일부이자 피조물의 하나인 우리의 인간도 궁극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개인의 열정을 잊지 말고 끝까지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바람과의 대화 이후 산티아고는 바람이 자신으로 하여금 태양에게 도움을 부탁해보라고 말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바람은 네가 사랑을 알고 있다고 말했어. – 산티아고가 태양에게 말했다. – 만일 네가 사랑을 안다면,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혼 *Alma do Mundo*'[26]도 알 거야. (...) – 하지만 너는 사랑을 몰라.

---

se um metal fosse cozinhado durante muito e muitos anos, terminaria se libertando de todoas as suas propriedades individuais, e em seu lugar sobraria apenas a Alma do Mundo(*O Alquimista*, 112).

25) 이 용어의 경우 문학동네에서 출판된 「연금술사」에서는 '자아의 신화'로 번역되어 있다. 코엘류는 산티아고와 살렘의 왕과의 대화에서 Lenda Pessoal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네가 언제나 하고 싶었던 것이지. 모든 사람들은 젊은 시절 초기에 자신의 자아의 신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원문보기: É aquilo que você sempre desejou fazer. Todas as pessoas, no começo da juventude, sabem qual é sua Lenda Pessoal(앞의 책, 41).

26)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된 책에서는 모두 '만물의 정기'로 번역되어 있으나 솔출판사 출판된 융의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책에서는 세계의 혼으로 번역되어 있다.

> 만일 창조의 6일째 날이 없었다면 인간도 없었을 것이고 동(銅)도 언제나 동(銅)이었을 것이며 납도 언제나 납이었을 거야. 그 각각은 자신의 꿈(혹은 자아의 신화, lenda pessoal – 연구자 주)을 가지고 있지. 정말이야. 하지만 언젠가 그 꿈은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보다 나은 것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다른 새로운 꿈을 가질 필요가 있게 돼. 세상의 혼이 정말로 단지 하나가 될 때까지 말이야.[27]

여기서 동과 납과 같은 광물이 자신보다 좀 더 나은 물질, 즉 금으로의 변환을 꿈꾸고 추구하는 것(Lenda Pessoal)[28]은 세상의 혼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상의 혼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혼이 절대자의 혼이요 절대자의 혼이 바로 각 피조물의 혼이므로,[29]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피조

---

27) 원문보기: – O vento me disse que você conhece o Amor – disse o rapaz ao sol. – Se você conhece o Amor, conhece também a Alma do Mundo, que é feita de Amor.
(...) – (...) Mas não conhece o Amor. Se não houvesse um sexto dia da criação, não haveria o homem, e o cobre seria sempre cobre, e o chumbo seria sempre chumbo. Cada um tem sua Lenda Pessoal, é verdade, mas um dia esta Lenda Pessoal será cumprida. Então é preciso transformar–se em algo melhor, e ter uma nova Lenda Pessoal, até que a Alma do Mundo seja realmente uma coisa só(앞의 책, 198–199).

28) 산티아고와 나누는 대화에서 연금술사는 연금술사의 부류를 세 가지로 나누면서 그 가운데 연금술의 비밀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납과 동 그리고 철 역시 스스로가 이행할 자아의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 원문보기: Esqueceram–se de que o chumbo, o cobre, o ferro, também têm sua Lenda Pessoal para cumprir(앞의 책, 186). 또한 사막에 있는 조개를 집어 귀에 대어보라고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다는 이 조개 속에서 계속 존재하지.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자아의 신화니까. 그래서 사막이 다시 바닷물로 덮힐 때까지 결코 자아의 신화를 버리지 않을 거야." 원문보기: O mar continua dentro desta concha, porque é sua Lenda Pessoal. E jamais a abandonará, até que o deserto se cubra novamente de água(앞의 책, 186).

29) 뒤에 다시 보겠지만 이것은 산티아고가 바람으로 변환하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산티아고는 세상의 혼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그리고 그 세

물들이 창조주와의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시성에서 영원성으로의 변환이기도 하며 자신을 존재하게 한 창조주로의 회귀, 즉 본원으로의 회귀를 의미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세상의 혼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와의 합일을 추구하는 열정(Lenda Pessoal)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열정을 중심으로 모두 서로를 도우며 힘을 합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작가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말, 즉 "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전(全) 우주가 네가 원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은밀히 움직일 것이다"[30]라고 살렘의 왕의 말을 빌어 얘기하였던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코엘류는 산티아고의 입을 빌어 그 세상의 혼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의 집단무의식이기도한 세상의 혼의 존재방식은 바로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정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31]

> – 내가 처음으로 그 혼속에 침투하여 들어갔을 때 그 혼을 구성하는 것들도 피조물이었으며 그것들도 자신만의 전쟁과 열정이 있

상의 혼이 절대자의 혼의 일부이며 그 절대자의 혼은 바로 자기 자신의 혼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자기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음을 보았다." 원문보기: E o rapaz mergulhou na Alma do Mundo, e viu que a Alma do Mundo era a parte da Alma de Deus, e viu que a Alma de Deus era a sua própria alma. E que podia, então, realizar milagres(앞의 책, 203).

30) 원문보기: (..) "quando você quer alguma coisa, todo o Universo conspira para que você realize seu desejo(앞의 책, 42)."

31) *O Alquimista*의 서문(Prefácio)에서 코엘류는 가톨릭 내의 비밀단체인 RAM에서 알게 된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연금술을 배우며 깨달은 바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난 나를 그토록 짜증나게 하고 갈피를 못잡게 했던 (연금술의 – 연구자 주) 상징 언어가 세상의 혼 혹은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던 것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임을 발견했다." 원문보기: Descobri que a linguagem simbólica, que tantos me irritava e me desnorteava, era a única maneira de se atingir a Alma do Mundo, ou o que o Jung chamou de "inconsciente coletivo"(앞의 책, 7).

다는 것을 발견했어. 그 세상의 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가 보다 나아지는지 아니면 더 나빠지는지에 따라 그 자신도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져.[32]

이어 『연금술사』의 핵심어이기도한 보물과 연금술의 의미를 서로 연결시키면서 코엘류는 산티아고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걸 위해 연금술이 있는 것이지 – 산티아고가 말했다. – 각각의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물을 찾아 나서게 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이전 삶 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기 위함이지. 납은 세상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거야. 그러면 그 납은 금으로 변할 것임에 틀림없어.

연금술사들이 그런 것을 하지. 그들은 우리가 현재의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할 때 주위의 모든 것 또한 더 나아진다는 것을 보여줘."[33]

이 인용문에서 산티아고가 말한 연금술의 존재 이유, 즉 "각각의 인간

32) 원문보기: – Porque o amor não é estar parado como o deserto, nem correr o mundo como o vento, nem ver tudo de longe, como você. O Amor é a força que transforma e melhora a Alma do Mundo. Quando penetrei nela pela primeira vez, achei que fosse as criaturas, e tinha suas guerras e suas paixões. Somos nós que alimentamos a Alma do Mundo, e a terra onde vivemos será melhor ou pior, se formos melhores ou piores. Aí é que entra a força do Amor, porque, quando amamos, sempre desejamos ser melhores do que somos(앞의 책, 200).

33) 원문보기: – Para isto existe a Alquimia – disse o rapaz. – Para que cada homem busque seu tesouro, e o encontre, e depois queira ser melhor do que foi na sua vida anterior. O chumbo cumprirá seu papel até que o mundo não precise mais de chumbo; então ele terá que transformar–se em ouro.

"Os Alquimistas fazem isto. Mostram que, quando buscamos ser melhores do somos, tudo em volta se torna melhor também(앞의 책, 200)."

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물을 찾아 나서게 하고 또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이전 삶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부분을 자세히 보면 작가의 연금술 연구경험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보물을 찾아 노력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산티아고의 모습이 바로 연금술의 존재 이유라고 밝히고 있듯이, 불완전한 광물에서 금으로의 끊임없는 변환을 시도하는 연금술의 교훈이 산티아고로 하여금 "이전의 삶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변하기를 바라도록" 하는 모티브로 작용하였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메시지가 코엘류의 연금술 연구경험에서 우러나 작품 전체에 스며있다고 할 것이다.

이어 산티아고는 보다 나은 것, 보다 나은 삶으로의 변환과 열정을 밑받침하고 실현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설파한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볼 구원의 문제로 직결된다.

3. 구원

연금술이 인간의 구원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연금술의 여러 특징들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한시성을 넘어 영원성을 얻고자하는 노력도 그렇고, 세상의 혼으로의 회귀, 즉 자신을 낳은 절대자로의 회귀 또한 그러하다. 그것은 융이 연금술을 무의식의 투사로 보았듯이 연금술이 내포하고 있는 완전성의 추구라는 정신적인 측면을 볼 때 그러하다. 이에 대해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 금이 고도로 정신적인 상징을 담고 있다("금, 그것은 불멸이다"라고 인도의 문헌들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어떤 연금술적 구제론적 사변에 의해 예고된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 밝혀지게 된다. 그것은 곧 자연의 형제와도 같은 구제자로서

> 연금술사가 담당하는 역할의 개념이다. 연금술사는 자연을 도와 그 궁극 목적을 달성하고 그 '이상'에 도달하도록 한다. 자연의 이상이란 지고의 '성숙', 즉 불멸성과 절대 자유(금은 절대 권위와 자율의 상징이다)에 도달하기까지 그 자손 광물, 동물, 인간을 완성시키는데 있다(미르치아 엘리아데 2003, 55-57).

그런데 사실 연금술이 내포하고 있는 구원의 내재적 의미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연금술이 기독교적 요소를 수용하면서부터였다. 즉 광물을 불로 용해하여 금으로 만드는 변환의 과정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관련지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으며 광물의 용해는 곧 수난과 죽음이요, 금으로의 탄생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원질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되기도 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가능했던 것이다.[34]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금술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끌어들임으로써 구원의 의미를 완성했다거나 종교의 논리에 맞춰 연금술의 방법을 활성화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수난-죽음-부활의 개념은 이미 연금술의 기초가 되었던 야금술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것을 융의 말처럼 인간의 무의식의 투사라는 관점에서 보건데 기독교에서 예수의 삶이 지니는 의미와 일치하는 것뿐이다. 또한 이미 보았듯이 예수가 있기 전인 고대 문명에서 연금술의 핵심인 불을 다루는 사람이 사제의 역할을 한 점에서 연금술은 종교와도 이미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만큼 태초의 인간 본연의 욕구가 투사된 것이다.

---

34) "16세기의 유명한 연금술사 하인리히 쿤라트Heinrich Khunrath는 현자의 돌을 예수 그리스도, 즉 '대우주의 아들'과 동일시했다. 더욱이 그는 그리스도가 소우주인 인간에게 영적인 충만을 허락했듯이, 현자의 돌을 발견함으로써 대우주의 진정한 본성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미르치아 엘리아데 2003, 180)."

> 물질의 '수난'과 '죽음'과 '재생'이라는 극적인 시나리오는 그리스·이집트의 초기 연금술에서부터 입증된다. 변환, 즉 현자의 돌로 귀착되는 위대한 작업은 함유 성분이 취하는 색깔에 따라 명명된 네 단계, 즉 멜란시스(흑색), 레우코시스(백색), 크산토시스(황색), 이오시스(적색)의 네 단계에 물질을 통과시킴으로써 달성된다. '흑색'(중세 저술가들의 '니그레도'에 해당)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러한 연금술의 비의들은 후에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 단계의 작업이 데모크리토스의 저서로 알려진 「자연학과 신비학」(조지모스에 의해서 보존된 단편), 즉 최초의 순수한 연금술서(기원전 2~1세기)를 통해서 이미 입증되었다는 점은 강조해두어야 겠다. 무수한 변형과 더불어 작업의 네(다섯) 단계 – 흑화, 백화, 접근, 적화, 때로는 생화, 때로는 공작 꼬리 – 는 아라비아와 서양 연금술의 전 역사를 통해서 보존되어 있다.
>
> 그와 더불어, 신의 신비극 – 수난, 죽음, 부활 –이 물질에 투사되어 물질을 변형시킨다. 요컨대, 연금술사는 비의에서 신이 취급되는 식으로 물질을 취급한다. 즉 광물질은 수난받고 죽어서 새로운 존재양상으로 재탄생한다. 즉 변환되는 것이다.(미르치아 엘리아데 2003, 153-154).

즉 광물의 용해는 수난을 의미하고 이 수난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대비되며, 불에 의해 금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광물 본질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대비된다. 그리고 광물이 마지막으로 금으로 변하는 것은 광물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다시 예수의 부활과 상응하게 된다는 말이다. 즉 구원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O Alquimista*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코엘류가 인식하고 있는 자연의 순환과정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사막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산티아고가 한 말을 보자.

> – 사랑이란 무엇인가? – 사막이 물었다.
> – 사랑은 너의 사막 위를 나는 대의 비행(飛行)이지.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너는 푸른 초원이기 때문이며 그는 결코 먹잇감을 찾지 못한 채 둥지로 돌아간 적이 없었어. 그는 너의 바위며 언덕 그리고 산들을 알고 있어. 그리고 너는 관대해.

– 매의 주둥이는 나에게서 내 부분들을 빼앗아 가버려. – 사막이 말했다.

– 수년 동안 나는 그의 먹잇감을 키우고 내가 갖고 있는 적은 양의 물을 먹여 키우지. 그리고 먹이가 어디에 있는 지를 보여줘. 그러면 어느 날 그 매는, 내가 나의 모래 위를 기어 다니는 그 먹잇감의 다정한 접촉을 느낄 바로 그 무렵에, 하늘에서 내려와 내가 키워놓은 것을 가져가버려.

– 하지만 네가 그 먹잇감을 키운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었잖니. – 산티아고가 대답했다. – 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말이야. 그러면 그 매는 어느 날 너의 모래에게 먹이를 줄 것이고 그 모래들로부터 먹잇감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거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 사랑이란 것이 그것인가?

– 그게 사랑이야. 먹잇감이 매로 바뀌고 매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사막으로 바뀌는 것이 사랑이지.[35]

---

35) 원문보기: – O que é o amor? – perguntou o deserto.

– O amor é o vôo do falcão sobre suas areias. Porque para ele você é um campo verde, e ele nunca voltou sem caça. Ele conhece suas rochas, suas dunas e suas montanhas, e você é generoso com ele.

– O bico do falcão tira pedaços de mim – disse o deserto. – Durante anos cultivo sua caça, alimento com a pouca água que tenho, mostro onde está a comida. E um dia, desce o falcão do céu, justamente quando eu ia sentir o carinho da caça sobre minhas areias. Ele carrega aquilo que criei.

– Mas foi para isto que você criou a caça – respondeu o rapaz. – Para alimentar o falcão. E o falcão alimentará um dia suas areias, de onde a caça tornará a surgir. Assim se move o mundo.

– É isto o amor?

– É isto o amor. É o que faz a caça transformar-se em facão, o falcão em homem, e o homem de novo em deserto. É isto que faz o chumbo transformar-se em ouro; e o ouro voltar a esconder-se sob a terra(*O Alquimista* 2003, 194-195).

매가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은 다시 사막으로 바뀌는 것, 즉 먹잇감→매→사람→사막→먹잇감으로의 순환자체가 사랑의 행위라는 말이며 각 요소가 다른 요소로 넘어가는 것은 수난과 죽음을 의미한다. 먹잇감이 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람이 다시 죽어 땅(사막)으로 돌아가며 어머니인 땅, 대지모가 다시 그 먹잇감을 잉태함으로써 부활하게 된다. 이 순환의 고리는 자연의 섭리이자 연금술이 내포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 즉 수난-죽음-부활과 일치한다. 그리고 인용문에서 보듯이 코엘류는 그 순환의 고리를 엮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한다. 즉 자연의 섭리는 곧 사랑에 기초한 것이라는 의미이며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창조주와 창조물이 하나가 되는 세상의 혼이라고 말한다.

> 바람이 나에게 그러길 네가 사랑을 알고 있다더군. 산티아고가 태양에게 말했다. 네가 사랑을 안다면 세상의 혼 역시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거야.36)

그렇기에 코엘류는 자신의 소설 *Brida*에서 주인공 브리다의 스승인 비까(Wicca)의 입을 빌어 우주 창조의 비밀, 즉 모든 것이 하나였던 세상의 혼의 비밀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것은 연금술사들이 찾고자 했던 비밀이었으며 코엘류 자신도 연금술, 신비주의 등을 통해 도달했던 결론이기도 하다.

> – 창조의 본질은 단 하나야.
> 비까가 말했다.
> – 그리고 그 본질은 바로 사랑이지.37)

---

36) 원문보기: – O vento me disse que você conhece o Amor – disse o rapaz ao sol. – Se você conhece o Amor, conhece também a Alma do Mundo, que é feito de Amor(앞의 책, 198).

그렇다면 사랑은 *O Alquimista*의 산티아고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이었을까? 먼저 아래의 인용을 보자.

> 산티아고는 세상의 혼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그리고 그 세상의 혼이 절대자의 혼의 일부이며 그 절대자의 혼은 바로 자기 자신의 혼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자기가 기적을 행할 수가 있음을 보았다.38)

앞서 보았듯이 세상의 혼은 창조주와 창조물이 하나가 되는 그 무엇인 만큼, 세상의 혼은 절대자의 혼이요 그 절대자의 혼이 바로 인간의 혼임을 깨닫게 된 순간, 산티아고는 절대자와의 합일을 이룸으로써 절대자의 권능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산티아고와 연금술사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산티아고로 하여금 절대자와 합일을 가능하게 했던 매체는 앞선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바로 자연의 섭리의 바탕이기도 했던 사랑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산티아고(인간)는, 자신을 존재하게 한 절대자(아버지)에게로 회귀하여 하나가 되었으며 드디어 바람을 일으켜 목숨을 유지하는 구원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구원은 단순한 목숨의 유지라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라는 차원으로 넘어간다. 즉 절대자와의 합일을 통해 기적을 행함으로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 구원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기적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절대자와의 합일이 진정한 구원인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인 이유는 코엘류의 많은 작품

---

37) 원문보기: – A essência da Criação é uma coisa só – disse. – E esta essência chama-se Amor(*Brida* 1990, 46).

38) 원문보기: E o rapaz mergulhou na Alma do Mundo, e viu que a Alma do Mundo era a parte da Alma de Deus, e viu que a Alma de Deus era a sua própria alma. E que podia, então, realizar milagres(*O Alquimista,* 203).

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절대자에 의해 에덴에서 쫓겨남으로써, 즉 절대자에게서 떨어져 나옴으로써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과 고통이 시작되었기에 그 해결책은 결국 절대자에게로의 회귀라는 코엘류의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박원복 2008, 201-212 참조). 물론 이것은 연금술사들이 찾고자 했던 원질료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기도 했던 부분에서 이미 엿볼 수 있었으며 광물을 금으로 변환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난-죽음-부활이 먹잇감→매→사람→사막→먹잇감이라는 순환구조로 대비된 점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나아가 보물을 찾아 스페인의 남부 안달루시아를 떠나 지브롤터해협을 거쳐 아프리카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떠났다가 애초의 출발점이었던 안달루시아의 어느 작은 교회당으로 돌아와 보물을 찾게 된다는 소설의 구조 역시 큰 의미에서 본원으로의 회귀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본 글을 통해 우리는, 연금술을 인간의 무의식이 투사된 것이라고 본다면, 그 무의식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이라는 문제와 직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파울루 코엘류는 적지 않은 세월을 헌신한 연금술을 통해 자아의 신화(Lenda Pessoal)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이를 자신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O Alquimista*를 통해 문학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음도 보았다.

물론,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그의 작품에 실린 내용들이 모두 연금술 경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거기에는 '산티아고의 길' 순례와 신비주의, 히피, 록음악, 마약, 군정치하에서의 대안사회운동 등 많은 경험들이 어우러진 것이며 그 외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개인적 체

험이라든가 사색의 결과들이 녹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내외적 혹은 직간접적인 요인들 가운데 가장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연금술 경험을 소재로 하여 그 경험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O Alquimista*를 중심으로 그의 작품세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금술의 기본적인 속성들, 즉 대극의 합일, 변환과 구원의 의미를 중심으로 *O Alquimista*의 작품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연금술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동 작품이 표출하고 있는 메시지 사이에 상당부분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의 작품 세계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쨌든 그가 20세기 후반부터 2009년 현재까지 총 1억 권이 넘는 판매부수를 기록하며 국경과 종교,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수많은 독자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막연한 사색으로 일갈하지 않은 채 거의 모든 작품을 많은 시련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글로 쓰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다.

Ⅴ. 참고도서

금인숙(2006), 『신비주의: 요가, 영지주의, 연금술, 수피주의』, 서울: 도서출판 살림.

박원복(2008), 『칼릴 지브란과 파울루 코엘류의 신비주의 사상 비교연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박사논문).

엄두섭(1980), 『신비주의자들과 그 사상』, 서울: 혜풍출판사.

최용호(2006), "코엘류의 『연금술사』에 대한 변증부 분석 – 텍스트 의미론의 관점에서 –", in 신현숙, 박인철 편, 『기호 텍스트 그리고 삶』,

서울: 도서출판 월인.

카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서성철 옮김(2005), 서울: 까치, (원제: El Espejo Enterrado, 1992), pp.75-79 ("산티아고의 길" 부분)

칼 구스타프 융(2004),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한국 융 연구원 C.G.융 저작 번역위원 역, 서울: 솔.

페드로 팔라오 폰스(2004), 『파울루 코엘류의 연금술사의 비밀』, 유혜경 옮김, 서울: 큰나무.

한국 문학과 종교 학회(편)(1995), 『문학과 종교의 만남』, 서울: 동인.

허봉화(1986), 『William Blake의 신비주의』, 대구: 형설출판사.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989), 『알렙』, 황병하 옮김, 민음사, (원제: El Aleph, 1989).

Andrade, Janilto(2004), *Por Que Não Ler Paulo Coelho...*, Rio de Janeiro: Caliban.

Coelho, Paulo(1988), *O Alquimista*, Rio de Janeiro: Rocco.

_____(1990), *Brida*, Rio de Janeiro: Rocco.

_____(2000), *O demônio e a srta. Prym*, Rio de Janeiro: Rocco.

Maestri, Mário(1999), *Por que Paulo Coelho Teve Sucesso*, Porto Alegre: AGE.

Smith, Margaret(1980), "The Nature and Meaning of Mysticism", *Understanding Mysticism* (edited by Richard Woods), Garden City(New York): Image Books.

▌ 논문투고일자: 2009년 4월 21일
▌ 심사완료일자: 2009년 6월 2일
▌ 게재확정일자: 2009년 6월 22일